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 후기

□ 제목 : 나의 미래를 탄탄히 해준 Dream Camp

□ 참여 프로그램 또는 행사명

- Dream Camp

□ 후기내용

- 막막했던 3학년에 만났던 Dream Camp

4학년만 남은 2020년의 겨울, 고등학교 시절의 내가 대학교 3학년을 마친 나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보곤 한다.

3학년이 될 때까지 나는 취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만 가진 학생이었다. 그랬기에 봉사 활동부터 장기 프로젝트 수행 등 여러 활동을 참여하면서 자신의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2학기 첫 수업 날 이력서를 작성해보라는 교수님의 말씀에 인쇄했던 이력서에 한 줄도 적지 못해 머리만 부여잡고 있었다. 분명히 현재까지 해왔던 봉사 활동이나 공모전, 프로젝트가 있었는데도, 이력서의 질문에 맞게 나의 경험을 써야 하는지 감을 잡지 못했다. 매서운 취업 한파 속에서 동사(凍死)하게 생긴 나는 어떻게 해야 이 막막한 상황을 타파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그런 의미에서 Dream Camp는 나에게 예상치 못한 하나의 돌파구가 되었다.

-3년의 경험을 기록으로 만들어준 '서류 전형의 이해'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Dream Camp를 다녀오기 전까지 학교 캠프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이전에 다녀왔던 Skon Camp는 다른 학과와 같이 진행해서 정작 나의 전공 미래에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미래 10년 계획서 작성하기와 같은 막연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는 내 생각이 완벽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Dream Camp가 이전 캠프보다 나았던 점은 취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위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어떻게 이력서를 작성해야 하고, 면접에 임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프로그램들은 곧 4학년이 돼서 취업해야 하는 나와 동기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Dream Camp에서 처음으로 한 프로그램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활동이었다.

강사님들은 이공 계열에서 취업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현재 취업 시장에서 도움 되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가르쳐 주셨다.

학생 역량 개발 시스템에서 미리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왔기에 다른 동기들에 비해 더 많은 첨삭의 기회를 받을 수 있었다. 강사님께서 나와 상담하면서 하신 말씀 중 기억나는 구절이 있다. "대학 생활 하는 동안 자신의 한정된 경험 속에서 수십 개의 다른 회사 인재상에 맞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이 취업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강사님께서선 내가 작성했던 직무역량 및 경험을 보면서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와의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으셨다. 또한 3년 동안의 대학 생활 중 인상 깊은 기억을 순서대로 이야기하자 자기소개서에 적어볼 만한 기억을 짚어주시면서 그 이야기들을 토대로 작성해보자고 도움을 주셨다. 이를 통해 나의 3년간의 활동이 막연한 기억으로 남는 것이 아닌 하나의 기록으로 만들어 회사가 바라는 인재상, 회사가 바라는 직무 역량에 어떤 경험을 쓰기 알맞은지 직접 검토해 볼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

-선배님들과의 만남

강사님과의 상담 및 이력서 첨삭을 끝내고 선배님들과 만남이 있었다.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중소기업의 경력직 개발자가 어떻게 해야 대기업까지 이직을 할 수 있는가였다. IT 기업은 매우 많은 회사가 있고, 중소기업으로 처음 취직하는 신입 개발자가 많기에 자신의 가치를 올려서 더 나은 회사로 이직하는 방법은 곧 취직해야 하는 나에게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선배님께서선 경력직으로 이직을 한다면 신입을 취업할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테스트를 본다고 말씀하셨다. 취업하고 지금까지 해온 프로젝트들과 동시에 자신의 담당과 해당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면접을 본다는 것이 차별점이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선배님과 1대1 대화를 하면서 정보 전략팀에서의 근무 경험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시스템 기반 업무 표준 프로세스 정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공부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현재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서 어떤 직무를 맡을 것인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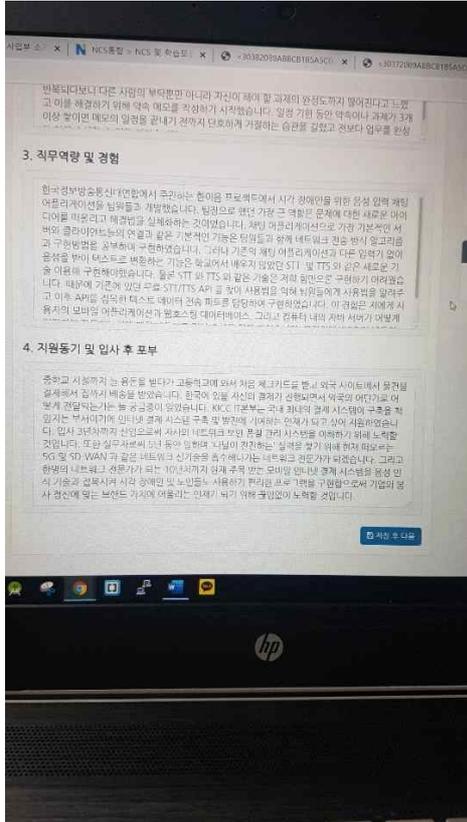
-Dream Camp를 마치면서

Dream Camp를 통해 현재 내 3년의 생활에서 부족했던 점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었다. 특히 학생 역량 개발 시스템 사이트에서 나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자기 소개서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저학년 캠프와는 다른 프로그램 구성의 탄탄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학교 공지사항으로 공지했던 자기소개서 사전 작성 사이트가 현재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잘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이였다. 사이트가 활성화 된다면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더 쉽게 자신의 경험을 기록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다.

2020년 새해, 늘 그렇듯 취업 한파는 따뜻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지만, Dream Camp를 다녀온 지금, 막연했던 두려움보단 준비를 철저히 하자는 결심을 다지고 있다.

-Dream Camp 당시 사진



Dream Camp에서 작성했던 자기소개서